

태국한인소식

The Korean Association in Thailand

October 2025

창간 준비 1호

(좌) 벤치마킹 (대리석 사원)

태국 돌보기

Siam이라는 태국의 나라 이름

태국 부동산 인사이트

지진 이후, 우리가 사는 집은 안전할까요?

자녀 교육 & 진학

제3문화 아이, 교육의 길을 안내하다

교민과 사람들

MAS SHIN THAI 김신 대표

뉴스속보 QR



OFFLINE TO ONLINE



스토리 오브 시스템은
사용자가 경험하는
현장[Offline] 이야기가 담긴
시스템[Online]을 제공합니다

이동통신
셀프개통
시스템

Fulfillment
System &
Service

SMART
FACTORY

한국어교육
솔루션

“ 태국 교민 여러분께 첫 인사를 드리며 ”



제34대 재태국 한인회
회장 윤 두 섭

안녕하십니까, 태국 교민 여러분.

이렇게 한 권의 잡지로 여러분을 찾아뵙게 되어 가슴 벅찬 마음을 전합니다. 지금 여러분의 손에 들린 이 잡지는, 단지 정보와 기사를 담은 종이뭉치가 아닙니다. 이것은 우리가 태국이라는 낯선 땅에서 서로를 지탱해온 이야기이고, 앞으로도 함께 나아갈 수 있다는 약속이자 응원의 메시지입니다. 그리고 바로 오늘, 그 첫 걸음을 내딛게 되었습니다.

태국에는 참으로 다양한 배경을 가진 교민들이 계십니다. 오랜 시간 이곳에 뿌리내린 선배 교민, 사업을 일구고 계신 분들, 아이들의 교육을 위해 이주한 가족, 또 이제 막 이곳을 삶의 터전으로 삼으려는 새로운 얼굴들까지. 우리가 살아가는 방식은 제각각이지만, ‘낯선 곳에서 서로를 의지하며 살아간다’는 점에서는 모두가 하나의 공동체입니다.

‘한인회 소식지’라는 이름으로 우리가 하고자 하는 일은 단순합니다. 바로 이 땅에 살아가는 여러분의 삶을 더 편하게, 더 즐겁게, 더 따뜻하게 만드는 것입니다. 태국의 변화하는 비자 정책, 사업 관련 법률 정보, 건강관리와 교육 소식 등 꼭 필요한 생활정보를 실용적으로 전달하고, 교민 사회에서 벌어지는 문화 행사, 경제 동향, 인터뷰 등은 서로에게 공감과 용기를 줄 수 있는 이야기로 엮어내고자 합니다. 또한 이 잡지는 정보 전달을 넘어, ‘외국에서 산다는 것은 결코 외로움이 되어서는 안 된다’는 믿음에서 시작되었습니다. 그래서 교민 여러분의 목소리를 더 자주, 더 가까이 싣겠습니다. 한 사람 한 사람의 경험과 이야기가 바로 이 잡지의 주인공이기 때문입니다. 특히 창간 준비호부터는 직접 겪은 생활 법률 분쟁, 창업 스토리, 자녀 교육의 시행착오, 그리고 이웃과 나눈 따뜻한 에피소드까지, 우리 삶의 구석구석을 함께 기록하고 나누려 합니다. 이번 준비호를 시작으로, 매달 한 권의 잡지를 통해 우리는 서로를 조금씩 더 알아가게 될 것입니다. 그 안에서 교민사회는 더 단단해지고, 이방인의 삶은 덜 낯설고 덜 외로워질 것입니다.

물론 처음 시작하는 길이기에 부족한 점도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저희는 언제나 열린 마음으로, 여러분의 의견을 듣고 반영하며 함께 성장하는 매체가 되겠습니다. 교민 여러분의 목소리 하나하나가 바로 이 잡지의 길잡이이자 원동력입니다.

이제 막 첫 페이지를 넘기신 여러분, 부디 이 잡지가 여러분 삶에 소소한 도움이 되고, 하루의 틈에서 따뜻한 쉼이 되기를 바랍니다. 가까이 두고 종종 꺼내볼 수 있는 친구 같은 존재가 되도록 늘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뜨거운 계절 속에서도 서로를 향한 마음은 언제나 선선하길 바랍니다. 태국이라는 이국의 땅에서, 오늘도 씩씩하게 살아가는 여러분 모두를 응원합니다.

발행인 윤 두 섭 올림 ”

Contents

- 03 발행인 인사말
- 04 축하의 말씀
- 05 한인회 소식
- 06 교민 소식통

- 07 태국 돋보기
- 08 즐거운 교민생활 법률 상식
- 09 태국 부동산 인사이트
- 10 자녀 교육 & 진학

- 11 방콕한국학교 모집 요강
- 12 교민과 사람들
- 14 한인회 소개

태국 재외동포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주태국대한민국대사관
대사 박 용 민

주태국대사관 박용민 대사입니다.

제34대 재태국한인회에서 새롭게 한인 소식지를 발간한다는 반가운 소식을 접하여 지면으로 동포 여러분들께 인사를 드립니다.

한인 소식지의 첫 발간을 축하하며 물심양면으로 준비해 주신 모든 관계자 여러분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한인회는 태국의 재외동포 여러분들의 권익과 편의 증진을 위해 많은 고민도 하고 실제적인 역할도 하고 있습니다.

최근에는 한인회관을 이전하고 한인회원 가입시 무료 건강검진, 병원 할인, 자동차 구입 및 보험 가입 시 할인 혜택을 마련하였습니다.

또한, 4월에 ‘태국 교민을 위한 생활 및 정착 지원 사업(Klass)’을 개최하여 법률, 생활의료, 주거, 교육 분야의 전문가를 초빙하여 여러 정보들을 제공했고, 5월에는 21대 대통령 재외선거에 많은 분들이 투표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홍보해 주셨습니다.

특히, 9월초에는 재외동포청과 함께 ‘찾아가는 통합민원서비스’를 개최하여 국적, 병역, 교육, 관세 분야 등에 대해 동포분들에게 맞춤형으로 궁금증을 해결해 드리기도 하였습니다.

10월에는 김치문화축제와 제12회 꿈나무 한마당 행사, 연말에는 송년행사도 개최할 예정이라고 합니다.

태국내 동포분들을 위해 준비한 다양한 행사와 생활 정보들을 알리고 공유할 수 있도록 한인 소식지도 동포 여러분들에게 실질적인 도움이 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한인 소식지가 단순한 정보 전달을 넘어, 한인회를 중심으로 깊은 공감과 연대를 느낄 수 있는 풍성한 공동체로 거듭나는 매개체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동포분들의 많은 관심과 응원을 기대합니다.

감사합니다.

주태국대한민국대사관 대사 박 용 민 올림



한인회 동정



2025년 1월 23일

제34대 윤두섭 회장 취임, “공존을 위한 혁신” 출범.

2025년 1월 23일, 윤두섭 신임회장이 공식 취임하며 제34대 집행부가 출범했습니다. 한인 사회의 단합과 실질적 지원 확대를 위한 비전을 제시했습니다.

2025년 8월 2일

태국-캄보디아 국경 피해 주민 위한 긴급 구호

재태국한인회는 컵라면 1,050개를 기부하며 국경 피해 주민을 위한 따뜻한 연대를 실천했습니다. DDPM 특별센터에 직접 전달했습니다.



2025년 4월 2일

재난 대응 위한 카카오 채널 개설 및 구호 활동

지진 발생 이후 재태국 한인회는 실시간 공지를 위한 카카오톡 채널을 개설하고, 방콕시청에 구호물품을 전달하며 피해 주민과 구조대원들을 지원했습니다.

2025년 8월 10일

화사 콘서트, 한인회원 200명 무료 초청

2025년 8월 10일, 재태국 한인회는 K-Pop 스타 화사 콘서트에 회원 200명을 무료 초청하며 교민 문화 향유의 기회를 제공했습니다.



2025년 8월 15일

광복 80주년 기념식, 교민 사회의 역사 의식 고취

2025년 8월 15일, 재태국한인회는 태극기를 한인타운에 달고 광복절 기념식을 개최하였으며, 다양한 프로그램으로 교민 단합과 역사의식을 되시기는 뜻깊은 장을 마련했습니다.



2025년 9월 5일

재외동포청, ‘찾아가는 민원서비스’ 한인회서 진행

9월 5일, 재외동포청은 한인회 강당에서 국적·병역·교육 등 민원서비스를 직접 안내하며 교민들과의 현장 소통을 강화했습니다.

공지사항+알려드립니다



재태국한인회,

추석맞이 김치축제 및 꿈나무 한마당 개최

재태국한인회(회장 직무대행 윤두섭)가 한가위를 맞아 10월 4일(토) 방콕 롬브란트 호텔에서 '추석맞이 김치 축제'와 '제12회 꿈나무 한마당'을 함께 개최한다. 오전 9시부터 오후 5시까지 진행되는 이번 행사는 김치 만들기 체험, 김치 퀴즈, 그리고 어린이들을 위한 백일장 및 미술대회로 꾸며진다. 참가하는 모든 어린이에게는 푸짐한 상품이 제공된다. 한인회 관계자는 "태국 한인들이 모여 추석의 의미를 되새기고, 아이들에게는 한국 문화를 경험할 수 있는 소중한 기회가 되길 바란다"고 전했다. 참가 신청 및 문의는 한인회 홈페이지(thaikorean.kr) 또는 사무국(02-100-4749)으로 하면 된다.

세계한인경제무역협회,

'2025 옥타 글로벌 스타트업 대회' 개최

세계한인경제무역협회(월드옥타)가 인천광역시와 공동으로 '2025 옥타 글로벌 스타트업 대회'를 개최한다. 이 대회는 10월 28일부터 29일까지 인천 송도컨벤시아에서 열리며, 예비창업리그와 창업리그로 나뉘어 진행된다. 참가 기업들은 1:1 투자 상담, 월드옥타 해외 지사화 등 다양한 지원을 받을 수 있다. 월드옥타 박종범 회장은 "유망 기업들이 글로벌 시장 진출의 발판을 마련하도록 적극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같은 기간 '2025 코리아 비즈니스 엑스포'와 '제29차 세계한인경제인대회'도 함께 열릴 예정이다.

방콕 IP센터,

'한국 위조상품 식별 설명회' 개최

한국지식재산보호원 방콕 IP센터가 태국 내 한국산 위조상품 근절을 위해 10월 21일(화) 방콕 칼튼호텔에서 '2025년 한국 위조상품 식별 설명회'를 개최한다. 이번 설명회에는 태국 지식재산국, 세관 등 주요 단속 기관 관계자 80여 명이 참석하며, 한국 기업이 자사 제품의 위조상품 식별 방법을 직접 시연하는 기회를 갖는다. 방콕 IP센터 관계자는 "이번 설명회가 태국 내 위조상품 유통을 줄이는 데 큰 도움이 될 것"이라고 전했다.

방콕한국국제학교,

제3회 학교발전기금마련 골프대회

학교법인 방콕한국국제학교(KISB)가 학교 발전을 위한 기금 마련을 위해 '제3회 학교발전기금마련 골프대회'를 개최한다. 대회는 10월 18일(토) 오전 11시 30분부터 더 빈티지골프클럽에서 열리며, 참가비는 3,500바트다. 이사회 주최로 열리는 이번 대회는 재태국한인회 등 여러 한인 단체들이 협력한다. 마련된 기금은 학교 교육 환경 개선에 사용될 예정이다. 학교 관계자는 "교민 사회의 따뜻한 관심과 후원이 학교의 미래를 밝히는 데 큰 힘이 될 것"이라며 많은 참여를 부탁했다. 이번 대회는 단순한 기금 마련을 넘어 교민 사회가 하나로 소통하고 협력하는 장으로 자리매김하고 있다.

재외국민등록 시 기본증명서 제출 생략

재외동포청(청장 이상덕)이 국외에 거주하는 재외국민이 재외국민등록 신청 시 기본증명서를 직접 제출하지 않아도 되도록 민원인 구비서류를 간소화하는 내용의 '재외국민등록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개정안'을 2025년 8월 12일자로 공포·시행 하였습니다. 이번 개정으로 민원인이 동의할 경우, 등록 공관의 장이 직접 기본증명서를 확인하게 되어 편의성이 향상됐다. 기존에는 재외국민등록 신청이나 변경 신고 시 민원인이 직접 기본증명서를 발급받아 제출해야 하는 불편함이 있었다. 이를 통해 행정 절차가 한층 간소화되어, 해외에 거주하는 교민들의 불편이 크게 줄어들 것으로 기대된다.

Siam이라는 태국의 나라 이름

태국의 국제적 공식 명칭은 The Kingdom of Thailand이다. 그러나 태국인들은 스스로 이 명칭을 거의 쓰지 않는다. 공문서에는 항상 ประเทศไทย(쁘라텟타이)라 쓰는데, 이는 ‘자유의 나라’라는 뜻이다. 일상적으로는 ‘므엥타이’라는 표현도 널리 쓰인다. ‘쁘라텟’은 근대적 의미의 국가를 가리키지만, ‘므엥’은 느슨하고 자유로운 공동체를 가리킨다. 이 두 단어에는 태국 사회가 지닌 정체성, 즉 자율성과 자유에 대한 자부심이 담겨 있다.

태국 역사를 보면 국호는 특정 왕조와 도읍의 이름을 따르는 경우가 많았다. 7세기까지는 인도와 크메르 문화권의 영향 아래 있었고, 지금의 태국 지역에는 독립적 국가가 없었다. 그러다 13세기 들어 중국 원난성에서 내려온 타이족이 수코타이에 정착해 1238년 수코타이 왕국을 세우면서 태국 역사가 본격적으로 시작된다. 이어 1292년 란나 왕국, 1351년 아유타야 왕국이 등장하며 북부와 중부 전역을 아우르는 세력이 형성되었다.

아유타야 왕국은 15세기에 들어 수코타이를 병합하고, 주변 소국을 속국화하며 세력을 키웠다. 당시 동쪽에는 라오스의 란쌍 왕국, 남동쪽에는 크메르 제국의 후예들이 있었으며, 서쪽의 버마와는 끊임없는 전쟁을 치렀다. 아유타야 전쟁사는 태국인들의 역사적 자부심을 잘 보여준다. 특히 1593년 나레수언 왕이 버마군을 물리친 날은 오늘날 태국 국군의 날(1월 18일)로 기념된다.

이 시기는 서양과의 교류가 시작된 시기이기도 했다. 1511년 포르투갈 사절단이 아유타야에 도착하면서 서양 문물이 본격적으로 들어왔다. 포르투갈은 태국군에 총포와 탄약을 공급했고, 포르투갈 상인과 용병이 아유타야에 정착했다. 이 무렵 외국인들이 태국을 Syam이라 부르기 시작했는데, 이는 산스크리트어에서 ‘가무잡잡한’, ‘황금’을 뜻하는 단어에서 유래했다고 본다. 영어권에서는 Siam으로 굳어졌고, 서양 세계에서는 이 이름으로 태국이 알려졌다. 그러나 태국인 스스로는 당시에도 이 국호를 사용하지 않았다.

1767년 아유타야가 버마군에 의해 함락되자, 딱신 장군이 버마를 몰아내고 톤부리에 새 왕조를 세웠다. 이어 1782년 짜끄리 왕조가 지금의 방콕으로 수도를 옮겨 랏따나꼬신



아유타야 왕국 제18대 국왕 나레수언의 좌상

왕조를 열었다. 오늘날까지 이어지는 왕조의 시작이었다. 흥미롭게도 새 수도 이름을 그대로 국호로 삼지 않고, ‘자유’를 뜻하는 ‘므엥타이’라는 표현을 사용했다. 방콕은 당시 작은 어촌에 불과했기에 국호로 쓰이지 않았다.

19세기 들어 서구 열강과의 외교 관계가 본격화되면서 태국은 공식 국호를 필요로 하게 되었다. 19세기 이후 태국은 서구식 국호인 Siam을 채택했다. 이후 태국은 국제 사회에서 스스로를 시암이라 불렀고, 서양인들에게도 그 이름으로 알려졌다.

그러나 1932년 입헌군주제로 전환되면서 국호를 ‘쁘라텟타이’로 바꾸었고, 제2차 세계대전 직후 한때 ‘시암’으로 환원하였다가 1949년에 다시 ‘쁘라텟타이’로 확정했다. 이처럼 국호는 시대와 정권에 따라 변동했지만, 태국인들은 일관되게 자신들의 나라를 ‘자유의 나라’로 인식해 왔다. 지금도 공문서에는 반드시 ‘쁘라텟타이’라고 표기한다.

한자 표기인 ‘泰國’은 ‘Thailand’를 번역한 것으로 ‘큰 나라’라는 의미를 지니지만, 태국인 스스로는 그렇게 부르지 않는다. 그렇다면 우리는 태국을 어떻게 불러야 할까. 단순히 관습적으로 굳어진 ‘태국’보다는, 태국인들이 실제 사용하는 ‘쁘라텟타이’나 친근한 ‘므엥타이’를 고려하는 것이 자연스러울 수 있다. 이는 고려에서 유래한 외국식 호칭 ‘Korea’ 대신 우리 스스로를 ‘한국(Hankook)’이라 부르고 싶어 하는 마음과도 닮아 있다.

[글쓴이: POH IT 대표 박동빈]

태국 교민 생활법률 안내

병원 진료비 & 보험 청구 요령

태국에서 생활하다 보면 교민들이 자주 부딪히는 어려움 중 하나가 병원 진료비와 보험 처리 문제입니다. 이번 지면에서는 기본적인 법률 상식과 함께 실무에서 도움이 되는 정보를 정리해 드립니다.

응급실 치료는 국적과 관계없이

먼저 응급 상황에 처했을 때는 망설이지 말고 가까운 병원으로 가셔야 합니다. 태국 「응급의료법」은 환자의 국적이나 보험 유무와 상관없이 긴급히 생명을 구해야 하는 경우, 누구나 치료를 받을 권리를 보장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외국인이라고 해서, 혹은 보험이 없다고 해서 병원이 치료를 거부할 수는 없습니다. 심장마비, 큰 사고, 심한 출혈 등 생명과 직결되는 상황에서는 반드시 먼저 치료를 받을 수 있으며, 이후 비용 문제는 별도로 다뤄지게 됩니다.

교통사고 시 의료비 처리

태국에서 가장 빈번하게 발생하는 사건 중 하나는 교통사고입니다. 다행히 태국에서 운행되는 모든 정상적인 차량은 의무적으로 책임보험(Por Ror Bor)에 가입되어 있습니다. 이 보험은 피해자의 과실 여부와 관계없이 일정 금액의 치료비를 보장해 주는데, 현재 기준으로 최대 80,000바트까지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단순히 응급처치 차원을 넘어, 초기 치료비 전반이 포함되므로 사고 직후에는 병원에 이 사실을 알리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후 더 많은 치료비가 필요하다면 가해 차량이 가입한 추가 보험(예: 1급 보험)에서 보상받을 수 있습니다.

외국인 의료보험 청구 절차

해외에서 병원 진료를 받으면 가장 번거로운 부분이 바로 보험 청구입니다. 태국의 주요 병원은 외국인 대상 의료보험과 연계된 Direct Billing 시스템을 운영하기도 하는데, 이는 병원이 직접 보험사에 비용을 청구하는 방식입니다. 그러나 모든 병원이 이를 제공하는 것은 아니므로, 반드시 진료 전에 가능 여부를 확인해야 합니다.

Direct Billing이 불가능하다면 환자가 먼저 진료비를 결제한 뒤, 보험사에 서류를 제출해 환급을 받아야 합니다. 필요한 서류는 크게 세 가지입니다. 첫째, 영수증(Invoice + Receipt), 둘째, 영문으로 작성된 진단서(Medical Certificate), 셋째, 의무기록(Medical Record)입니다. 이 서류가 빠지면 보험금 지급이 지연되거나 거부될 수 있으므로 꼼꼼히 챙기셔야 합니다.

실무상 유용한 팁

현장에서 자주 겪는 상황을 토대로 몇 가지 조언을 드립니다.

- 병원비 영수증은 반드시 세부 내역이 나와 있는 서류로 받으셔야 합니다. 단순 총액만 찍힌 영수증은 보험사에서 인정하지 않는 경우가 있습니다.
- 교통사고와 관련된 치료라면 경찰 사고보고서를 함께 제출하는 것이 좋습니다. 해당 서류가 있으면 보험 처리 속도가 훨씬 빨라집니다.
- 만약 보험금 지급이 늦어지거나 병원·보험사와 분쟁이 생긴다면, 태국 보험위원회(OIC, Office of Insurance Commission)에 민원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이 기관은 보험 관련 문제를 감독·조정하는 역할을 합니다.

마무리하며

정리하자면, 첫째, 응급실은 누구나 차별 없이 치료받을 권리가 있습니다. 둘째, 교통사고 피해자는 의무보험(Por Ror Bor)을 통해 최소한의 치료비를 보장받습니다. 셋째, 외국인 보험 청구를 위해서는 영문 진단서와 영수증 확보가 핵심입니다.

태국에서의 생활은 언어와 제도의 차이 때문에 때때로 불안하게 느껴질 수 있습니다. 하지만 필요한 정보를 미리 숙지하고 준비한다면, 갑작스러운 사고나 질병 앞에서도 한결 더 안정적으로 대응할 수 있습니다. 이번 안내문이 교민 여러분의 생활에 작은 도움이 되기를 바랍니다.

구체적인 사건이나 분쟁 상황에서는 반드시 전문 변호사나 보험 전문가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글쓴이 : 장수길 한인회 총괄부회장]

지진 이후, 우리가 사는 집은 안전할까요?



부동산 웹브
대표 이 은 철

재태국한인회 한인소식지의 창간을 진심으로 축하드립니다. 그리고 이 지면을 통해 교민 여러분과 함께 부동산에 관한 이야기를 나눌 수 있게 되어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부동산은 단순히 주거와 투자의 영역을 넘어, 교민 생활 전반과 밀접하게 연결된 주제입니다. 누구나 안심하고

거주할 집이 필요하고, 사업을 시작하려면 적절한 입지가 필수적입니다. 그렇기에 저는 막중한 책임감을 가지고 이번 칼럼을 준비했습니다.

아내와 두 아이와 함께 태국에 정착하며 교민 사회의 일원으로 살아가고 있는 만큼, 부동산을 단순한 투자 수단이 아니라 우리의 삶과 직결된 문제로 바라보고 있습니다.

지진이 던진 질문, “내 집은 안전할까?”

지난 3월 미얀마에서 발생한 지진은 태국 전역에 큰 충격을 주었습니다. 지진 발생 직후 많은 교민들께서 “지금 사는 집은 괜찮을까?”, “고층 콘도보다 저층 주택이 안전하지 않을까?”라는 고민을 하셨습니다. 실제로 저희 사무실에도 안전성에 관한 문의와 상담 전화가 쏟아졌습니다. 그만큼 주거의 안정성은 누구에게나 절실한 문제입니다.

사실 태국 사회가 지진과 같은 재해의 위험성을 본격적으로 인식하게 된 것은 2004년 안다만 해역에서 발생한 대지진과 쓰나미 이후였습니다. 이 사건을 계기로 태국은 2007년부터 실질적인 내진설계 규정을 도입했습니다. 이후 2021년에는 더욱 강화된 기준을 적용해 전국 43개 주를 위험도에 따라 구분하고, 치앙마이·매홍손 등 미얀마와 국경을 맞댄 고위험 지역에 보다 엄격한 내진설계를 요구했습니다. 법적 기준만 보더라도 2007년 이전에 지어진 건물은 상대적으로 지진 위험에 더 많이 노출되어 있다는 사실을 알 수 있습니다.

신축이라고 다 안전하지는 않다

그렇다면 새로운 내진 규정을 적용한 신축 건물은 안전할

까요? 제가 직접 상담하고 현장을 다니며 확인한 결과, 그렇지만도 않았습니다. 오래된 건물은 물론이고 화려한 외관을 자랑하는 최신 콘도 중에서도 지진으로 인한 손상이 발견된 경우가 있었습니다. 건물의 위치, 토질, 시공사의 신뢰도 등 여러 요소가 복합적으로 작용하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단순히 건축 연도만으로 안전성을 단정할 수는 없습니다.

지진 이후 많은 입주인들이 건물 손상 여부를 집주인에게 문의했을 것입니다. 어떤 경우에는 정해진 기간 안에 수리를 받으라는 통보를 받아 불편을 겪기도 했습니다. 그러나 이는 집주인이 보험 청구나 보증 기간 내 수리를 위해 필요한 절차일 수 있으며, 협조하는 편이 분쟁을 예방합니다.

교민들을 위한 조언

주거 목적이라면 지진 위험을 줄이고 싶을 때 저층 콘도나 단독주택을 먼저 고려하는 것이 좋습니다. 만약 고층 콘도를 선호하신다면 2007년 혹은 2021년 이후 완공된 건물인지 확인하시고, 내진설계 적용 여부를 꼼꼼히 따져보시는 것이 안전합니다.

투자 목적으로 부동산을 보신다면 건물의 연식과 함께 개발사의 신뢰도, 그리고 지진·화재 등 자연재해를 포괄하는 보험 가입 여부까지 반드시 점검하셔야 합니다.

불안은 정보 부족에서 비롯된다

리스크는 알지 못할 때 가장 크게 느껴지지만, 사실을 정확히 알고 나면 막연한 두려움은 사라집니다. 우리가 사는 집이 어떤 규정 아래 지어졌는지, 또 어떤 보험과 안전장치가 마련되어 있는지 확인하는 것만으로도 불안은 훨씬 줄어듭니다. 불확실성을 객관적으로 바라보고 문제를 정면으로 마주할 때, 교민 여러분은 더 이상 불안 속에 살 필요가 없습니다.

지진 발생 후 반년이 지난 지금, 여전히 안전에 대한 고민은 이어지고 있습니다. 이번 칼럼이 교민 여러분의 걱정을 조금이라도 덜어드리고, 앞으로의 주거 선택과 부동산 판단에 도움이 되기를 바랍니다.

제3문화 아이, 교육의 길을 안내하다



ISE 교감
안 소 형

안녕하세요, 우리 자녀들의 교육은 언제나 많은 부모님들의 최우선 과제 일 것입니다. 외국인으로서 태국에서 살아가는 여러분들 중 많은 분들은 아마 태국어나 영어가 모국어 아닐 것입니다. 성인인 우리조차도 모국어로 시대의 변화에 맞춰가는 것이 쉽지 않은데, 그것을 외국에서, 외국어

로 감당해야 한다는 것은 분명 큰 부담이 될 수 있습니다. 여기에 더해 부모로서의 역할과 자녀를 위해 책임져야 하는 부분들이 매일의 삶에 더 큰 스트레스를 주고있으리라 생각됩니다. 제가 어떻게 이런 걸 알까요? 제 소개를 드리겠습니다.

제 이름은 안소형이고, 제 조부모님께서는 1980년대 후반, 태국에 대해 잘 알려지지 않았던 시절에 이곳으로 이민을 오셨습니다. 저희 가족도 제가 두 살 때 태국으로 왔습니다. 처음에는 방파궁에 정착했지만, 1993년에 파타야로 이사하게 되었습니다. 당시 젊었던 저희 부모님은 20대에 사업을 시작하며 새로운 나라에 적응해야 했고, 동시에 어린 두 자녀를 데리고 완전히 낯선 환경 속에서 부모로서의 역할을 처음부터 배워야 했습니다. 새로운 언어, 새로운 제도 속에서 부모가 되는 법을 전부 처음부터 시작해야 했습니다. 하지만 1990년대 초 부모님과는 달리, 저는 부모님이 제공 해주신 평생의 국제 교육 덕분에 다양한 기술과 도구들을 갖추게 되었습니다. 제 유아 교육은 세 살 때 몬테소리 학교에서 시작되었습니다. 부모님과 저를 둘러싼 환경 덕분에 저는 태국어, 한국어, 영어를 자유롭게 구사했습니다. 3학년이 되었을 때, 제가 태국어는 유창하게 말할 수 있었지만 읽고 쓰기는 제대로 하지 못했기 때문에 부모님은 저를 태국-이중언어 학교로 전학시켰습니다. 1년 반의 노력으로 읽고 쓰기를 능숙하게 할 수 있게 되었고, 5학년때 부모님은 저를 다시 미국식 국제학교로 옮기셨습니다. 당시에는 정보도 적었고 선택지도 많지 않았습니

다. 의존해 통역을 해야 했습니다.

아이 입장에서 부모님의 의사소통을 책임지는 것은 굉장히 큰 부담이었지만, 제게 5학년 무렵의 한국어 ↔ 영어 ↔ 태국어를 오가는 통역사 역할은 너무도 자연스러웠습니다. 국제 교육을 받으며 여러 문화를 오가고 세 가지 언어(거기에 학교에서 요구한 제4외국어까지)를 말하고 생각하는 것은 저에게는 특별한 일이 아니었습니다. 저는 한국에서 정규 교육을 받은 적은 없었고, 한국 문화와의 접점은 가정과 가족, 그리고 몇 년마다 들어오고 나가는 한국 친구들이 전부였습니다. 고등학교 졸업 후에는 미국으로 유학을 가 학부 과정을 마쳤고, 미국에서 계속 일하다가 한국에서 근무할 기회가 생겼습니다. 한국에 살면서 저는 한국 교육을 경험해본 적이 없다는 사실을 깨닫고 대학원 과정을 밟게 되었습니다.

오늘날, 저 같은 사람을 “제3문화 아이(Third Culture Kid)”라고 부릅니다. 모국 문화가 아닌 환경에서 자란 아이들을 일컫는 용어라 합니다. 저는 이제 두 살 아이를 둔 엄마이자, 제 모교인 국제학교 ISE(International School Eastern Seaboard)의 교감으로 일하며 어린 시절의 집과 학교로 돌아왔습니다. 이제 막 부모가 된 저의 모습은 30여 년 전 부모님의 모습과 닮아 있지만, 훨씬 많은 정보와 세 가지 언어에 능숙하다는 점에서 다릅니다. 저는 제 아이에게 통역을 맡길 필요가 없다는 확신이 있습니다. 또 완전히 낯선 교육 제도를 새롭게 헤쳐 나가야 했던 부모님과 달리, 저는 국제학교 교육을 처음부터 끝까지 경험한 교육자로서 그 길을 알고 있습니다. 한국인이지만 완전히 외국인도 아닌 정체성을 가진 사람으로서, 10년 이상 고등학교 영어 문학을 가르치고 대학 진학 상담을 해온 경험을 바탕으로 국제학교의 관리자가 되었습니다. 이러한 경험들이 모여 이 잡지의 월간 칼럼을 맡게 되는 행운을 얻었으리라 짐작 해 봅니다. 저는 제 삶 대부분을 해외에서 살아온 한국인으로서의 배경과 국제 교육에서 교사, 상담교사, 행정가로서의 전문성을 바탕으로, 외국에서 부모 역할을 하며 겪는 여러 고민들에 대해 조언을 드릴 수 있기를 바랍니다.

방콕한국국제학교

2026학년도 신입생 모집 및 학교 소개



방콕한국국제학교(KISB)가 2026학년도 초등학교 1학년 신입생을 모집합니다. KISB는 한국과 태국 양국 교육부의 인가를 받은 국제 명문 학교로, 한국인의 정체성을 지키면서도 세계로 뻗어나갈 글로벌 인재를 양성하는 데 주력하고 있습니다. 학생들은 배움의 즐거움을 느끼고, 도전하며 함께 성장하는 것을 목표로 합니다.

학교 교육 및 입시 성과

KISB는 체계적인 교육과정을 통해 학생들의 잠재력을 끌어냅니다.

- **초등 교육** 한국 현직 교사들이 한국 2022 개정 교육과정을 운영하며, 원어민 교사와의 수준별 영어 수업을 주당 9~11차시 제공합니다. KSL(Korean as a Second Language) 과정과 방과후학교 활동도 운영합니다.
- **중등 교육** 교과 전문성을 가진 한국 현직 교사들의 학업 지도를 통해 학생 맞춤형 교육 과정을 제공합니다. 동아리 활동과 진로 설계를 위한 라이시움 강연회 등을 통해 창의성과 포용성을 기를 수 있도록 돕습니다.
- **입시 결과** 2025학년도 대입에서 졸업생을 포함해 전체 학생 100%가 대학에 합격하는 우수한 성과를 달성했습니다. 학생 1인당 평균 3~4개 대학에 합격했으며, 연세대, 고려대, 성균관대 등 국내 주요 대학에 다수 합격자를 배출했습니다.



입학 설명회 및 신입생 면접 안내

입학을 희망하는 학부모를 위한 설명회 및 신입생 면접이 아래와 같이 진행됩니다.

- **입학 설명회** 2025년 10월 22일(수) 오전 9시 50분부터 10시 50분까지 본관 1층 회의실에서 열립니다. 학부모만 참석할 수 있습니다.
- **신입생 면접** 1차는 2025년 10월 22일(수) 오전 9시 50분, 2차는 2026년 1월 8일(목) 오전 10시에 도서관 및 1학년 교실에서 진행됩니다. 면접 당일에는 학생 동반이 필수입니다.
- **모집 대상** 2019년 1월 1일에서 2019년 12월 31일 사이에 출생한 8세(만 7세) 아동입니다. 태국에 체류하는 대한민국 국적 소지자이거나 부모 또는 조부모 중 1인이 한국인인 자에 한해 지원 가능합니다. 7세(만 6세) 조기 입학 희망자는 별도의 심사를 거쳐야 합니다.
- **신청 방법** 2025년 9월 8일(월)부터 10월 21일(화)까지 QR 코드로 접속하여 신청서를 작성 및 제출하면 됩니다.

학교 연락처

전화: (66)2 121-7760 (행정실), 065-681-2568 (학교 휴대폰)

이메일: kisbkk@gmail.com 카카오톡: kisb2018 홈페이지: <https://kisbangkok.kr/>

우리 기업 이야기-한인기업 탐방

태국 냉동탑차 시장 개척자, MAS SHIN THAI 김신 대표



Q. 간단한 자기소개와 현재 운영하고 계신 사업을 소개해주세요.

안녕하세요. 저는 김신이라고 합니다. 태국 촌부리에서 트럭 일반 및 냉동탑차, 그리고 FRP 부품을 제조하는 MAS SHIN THAI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회사는 처음에 FRP 자동차 파츠와 트럭 스포일러 생산으로 시작했지만, 지금은 냉동탑차를 주력으로 삼고 있습니다. 태국 내에서 한국인이 운영하는 유일한 트럭 탑 메이커라는 점은 제게 큰 자부심을 줍니다.

Q. 태국 거주 배경과 사업을 시작하게 된 계기를 말씀해주세요.

저는 세 살 때부터 부친의 사업으로 태국에서 성장했습니다. 그 뒤 일본에서 대학을 다니며 국제적 감각을 익혔고, 미얀마에서는 주재원과 사업 경험을 쌓으며 현지 경영 환경을 몸소 배웠습니다. 하지만 2021년 미얀마 쿠데타로 철수할 수밖에 없었고, 그 계기로 다시 태국으로 돌아오게 되었습니다. 어린 시절부터 몸에 밴 태국의 생활 경험, 그리고 부친이 구축해 놓으신 기반은 저에게 큰 자산이 되었고, 이를 발판 삼아 지금은 제 사업을 펼치고 있습니다.

Q. 어떤 사업 아이템을 선택하셨고, 그 이유는 무엇인가요?

저는 물류와 운송 산업이 인류가 존재하는 한 사라지지 않

을 산업이라고 확신합니다. 특히 냉동탑차는 농산물, 식품, 의약품까지 아우르는 물류의 핵심 수단이기 때문에 미래성 있는 분야라고 생각했습니다. 게다가 아버지께서 운영하시던 FRP 제조 공장을 기반으로, 가볍고 튼튼한 탑차를 개발할 수 있었습니다. 태국은 더운 기후 특성상 냉동 물류의 수요가 높기 때문에 이 분야에 집중하는 것이 옳다고 판단했습니다.

Q. 2세로서의 경험이 사업에 어떤 도움이 되었나요?

제가 가진 가장 큰 강점은 언어와 문화에 대한 이해입니다. 한국어뿐 아니라 일본어, 영어, 태국어, 미얀마어까지 다섯 개 국어를 구사할 수 있습니다. 이는 단순히 의사소통을 넘어, 고객의 마음을 이해하고 협력업체와 유연하게 협상하는 데 큰 도움이 됩니다. 국제학교와 다양한 나라에서의 경험은 자연스럽게 이런 역량을 길러주었습니다.

Q. 한국과 태국 문화를 모두 이해하는 장점을 사업에서 어떻게 활용하고 계신가요?

저는 항상 상황과 상대방에 맞는 ‘문화 코드’를 적용하려 합니다. 한국 고객을 상대할 때는 신속성과 체계적인 서비스를 강조하고, 태국 고객과는 유연성과 친밀감을 바탕으로 접근합니다. 이렇게 서로 다른 문화적 기대에 맞추어 소통하다 보면, 고객들은 더 큰 만족감을 느끼고 저 역시 신뢰를 쌓을 수 있습니다. 한국인의 치밀함과 태국인의 유연함을 모두 경험한 저만의 배경이 자연스럽게 사업에 녹아든 셈입니다.

Q. 사업을 통해 추구하는 가치나 철학이 있다면요?

저의 철학은 한마디로 ‘디자인과 기술’입니다. 태국 고객들은 외관의 미적 감각에도 민감하고, 동시에 기술적 완성도를 꼼꼼히 따집니다. 저는 한국인의 디자인 감각과 현대 기술력을 접목해, 냉각 성능과 연비를 모두 갖춘 탑차를 개발하고자 노력해 왔습니다.

Q. 주요 고객층은 어떻게 되시나요?**(한인 vs 태국인 vs 외국인)**

태국 내 자동차 업계 특성상 일본 기업과 태국 현지 고객이 가장 많습니다. 한국인 고객은 상대적으로 적지만, 저희 회사의 정직하고 투명한 거래 방식을 높이 평가해 주시는 분들이 점차 늘어나고 있습니다. 일본 고객분들은 특히 이런 정직성을 중요하게 보시고, 그 점에서 저희 회사에 큰 신뢰를 보내주십니다.

Q. 고객들에게 제공하는 특별한 서비스나**차별화 포인트가 있다면요?**

저희는 다른 어떤 것보다 ‘정직함’을 가장 큰 가치로 둡니다. 화려한 마케팅이나 과장된 광고보다, 약속한 품질과 조건을 철저히 지키는 것을 최우선으로 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태도는 시간이 걸리더라도 결국 고객의 마음을 얻는 가장 확실한 방법이라고 믿습니다. 일본 고객들이 저희를 선택하는 이유도 바로 이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Q. 기존 한인 커뮤니티와는 어떤 방식으로**소통하고 계신가요?**

저는 주로 한인 교회를 통해 교민들과 소통하고 있습니다. 또한 한인 2세 친구들과 네트워킹하며 정보를 교류하는 것도 중요한 교류 방식입니다. 교민 사회 안에서의 유대감은 저에게 큰 힘이 되고, 때로는 사업적인 아이디어로 이어지기도 합니다.

Q. 동포 사업가들과의 협력이나 네트워킹 경험이 있으시다면요?

최근에는 일본과 협력하여 이동식 슈퍼 차량을 개발했고, 태국 내 한국 음식점 운영자들과 협업해 푸드트럭 및 케이터링 사업을 전개하고 있습니다. 이런 프로젝트를 진행하면서 동포 사업가들과 함께할 때 훨씬 큰 시너지가 발생한다는 것을 체감했습니다.

Q. 새로 출범한 재태국한인회에 대해 어떤 기대를 갖고 계신가요?

운영진이 젊어지고 새로워진 만큼 교민 사회에도 신선한 바람이 불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앞으로 한인회가 교민들에게 유익한 정보와 실질적인 도움을 제공하는 플랫폼으로 자리잡기를 기대합니다.

Q. 2세 교민들을 위해 한인회에서 제공했으면 하는 프로그램이나 서비스가 있다면요?

특히 2세 사업자들이 서로 교류할 수 있는 프로그램이 필요합니다. 언어와 문화 차이 때문에 소통이 단절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사업자 매칭 이벤트나 분야별 네트워킹 자리를 마련해 주신다면, 저희 같은 2세 사업자들에게 큰 도움이 될 것입니다. 그런 자리를 통해 필요한 정보와 상품을 교환하고, 서로의 성장을 돕는 관계가 만들어질 수 있습니다.

Q. 마지막으로 사업체 위치, 운영시간, 주요 서비스를 간단하게 알려주세요.

저희 M.A.S. SHIN THAI CO., LTD.(전화 097-002-9062, 098-661-8155)는 태국 촌부리에 위치하고 있으며, 운영시간은 평일 오전 8시부터 오후 5시까지입니다. 주요 서비스는 트럭 탑차와 관련 부품 제조입니다.



한인회 최신 뉴스 속보 QR Code

이 QR코드는 언제 스캔을 하셔든 한인회에서 교민들에게 스캔 당시 최신 뉴스 속보를 보실수 있습니다.
창간호를 스캔하셔도 같은 뉴스속보를 제공해 드립니다.
버리지 마시고 꼭 가지고 계세요.



한인회 멤버십 가입하기

- 1 한인회 홈페이지 접속 → www.thaikorean.kr
- 2 맴버쉽 가입하기
- 3 일반회원 가입
- 4 정회원 전환하기
 - 일반회원 로그인 후 개인회원 전환하기
 - 일반회원 로그인 후 법인회원 전화하기

한인회 멤버십 혜택

- 1 태국 무료 기본 건강검진
(법인회원 가족 3인까지)
- 2 태국 주요 병원 할인 혜택
(범룽랏, 방콕, 사미티벳, 신포 등)
- 3 한국 서울 강남, 건강검진 40만원 혜택가
(회원+가족가)
- 4 한국 서울 강북, 건강검진 40만원 혜택가
(회원가)
- 5 태국 현대차 구입 할인 혜택
- 6 태국 자동차 보험 최대 8% 할인
- 7 재태국한인회 행사 우선 초대권
- 8 일반 법률·경제 자문 서비스
- 9 태국 차량정비 할인혜택

재난정보 알림 카카오톡 채널 가입 안내

재태국 한인회는 긴급 재난 상황 발생 시 실시간 공지 및 안내를 위한 공식 카카오톡채널을 개설했습니다. 지진, 태풍, 홍수 등 자연재해 발생 시 대피 및 대응 안내, 대사관 공식 재난 정보, 사건·사고 대처 매뉴얼, 긴급 구조 요청을 위한 기본 정보 등을 받을 수 있습니다.

가입 방법

1. QR 코드로 접속합니다.
2. '채널 추가'를 클릭합니다.



※ 여러분의 참여는 위기 상황에서 소중한 생명을 지키는 연결 고리가 될 수 있습니다.

Copyright © 2025 재태국 한인회 All Rights Reserved.

발행처 사단법인 재태국한인회

발행일 2025년 10월 05일

발행인 재태국한인회장(윤두섭)

기획제작 재태국한인회

주 소 23/16 Sorachai Building 12 Fl., 23 Soi Sukhumvit 63, Klong Tan Nuea, Wattana, Bangkok 10110, Thailand

이메일 thaihanin@gmail.com

홈페이지 <https://thaikorean.kr>

편집 및 인쇄 스토리오브시스템(khc@storysystem.kr)

해외에서 가볍게

 **대마** 한 번?

 법무부



주태국 대한민국 대사관



대마를 **흡연**한 경우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0만 원 이하의 벌금

대마를 **수입**한 경우

무기징역 또는
5년 이상의 징역

돌아와서
무겁게
처벌됩니다!

더 큰 대한민국, 재외동포와 함께 만들어 가겠습니다

재외동포청 출범 2주년



재외동포청



재외동포청 유튜브



재외동포청 인스타그램